

# 미륵사지 미공개 유물 전격 공개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 개국 1100주년 기념 특집전 '고려시대의 미륵사' 개최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관장 이병호)은 고려 개국 1100주년을 맞이하여 11일부터 12월30일까지 특집전 '고려시대의 미륵사'를 개최한다. 이번 특집전에서는 익산 미륵사지뿐만 아니라 익산 사자암, 부안 유천리 청자 가마, 출토품 등 다양한 고려시대 유물 200여 점을 엄선하여 선보인다. 특히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납석제 불상, 각종 고려청자와 중국 도자기, 진단구 등이 처음 선보인다.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 청자.

이번 전시는 불교를 장려했던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를 거치며 새롭게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고 수행했던 미륵사의 위상을 재조명하였다. ▲미륵사 중흥과 사원의 모습 ▲미륵사의 청자 ▲미륵사의 중국 동전 ▲미륵사의 차茶具 ▲미륵사의 수입품 ▲사자암 ▲소망을 담은 지진구 등 다양한 소주제로 이해를 돕는다.

특집전시장 안에는 청동제 보살 손, 금동제 허리띠 꾸미개, 청동 보살 머리 등 주요 전시품의 세밀한 장식과 무늬를 터치스크린과 UHD TV로 확대하여 감상할 수 있는 디지털 돋보기를 설치하여 전시품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특집전 기간 중에는 전시 연계 강좌로 '고려시대의 전복과 익산(전북대학교 하태규, 10.11.(목) 오후 2시)', '고려시대 미륵사의 변화와 불교사상(국립문화재연구소 한주성, 10.18.(목) 오후 2시)'을 개최하여 전시에 대한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이병호 관장은 "고려시대 민중의 삶 속에 뿌리내린 미륵사의 위상을 재조명함으로써 박물관을 찾아오는 관람객들에게 삼국시대와는 다른 고려시대 미륵사의 친근한 매력을 살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집전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은 지역의 대표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지역 주민과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김재훈기자

## 정읍시 전국국악대경연 '성료'

정읍시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최근 제26회 전국국악대경연이 펼쳐졌다.

전국국악대경연은 (사)한국민속예술진흥원(이사장 이광수)이 주최하고 정읍시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이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국악행사이다.

참가부문은 청소년 8개 부문(민요, 구정놀이, 가야금병창, 판소리, 기악, 무용, 풍물(얇은반, 선반)과 일반남녀 4개 부문(판소리, 민요, 기악, 무용), 풍물단체 3개 부문(구정놀이, 풍물, 단체)이다.

이틀에 걸쳐 펼쳐진 경연은 청소년학생 부문의 124팀과 일반남녀 부문에 70팀(신인부 30팀, 일반부 40팀) 및 풍물단체 부문에 16팀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시상 및 부상은 종합대상인 국회의장상을 수여받은 일반부 판소리 부문 참가자인 정영자 씨를 비롯하여 총 60여명에게 수여됐다. 교육부장관상은 청소년 판소리 부문에 참가한 김재영 군이 영예를 안았으며, 이의 국회문화체육위원회위원장 5명, 전라북도지사장상 6명, 정읍시장상 8명 등의 시상과 부상이 부분별로 진행됐다.

자리에 참석한 유진섭 정읍시장은 "올해로

26회를 맞는 전국국악대경연은 해를 거듭할수록 기성인 못지않은 뛰어난 청소년들의 기량을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정읍시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제26회 전국국악대경연'이 펼쳐졌다.

을 확인하고, 전통문화예술의 혼으로 성장할 신인 국악인들의 신명이 넘쳐나는 자리였다"며, "우리 고유문화를 계승발전 시킬 국악인 발굴과 체계적인 육성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올 가을엔 문학과 미술에 빠져볼까?'

무주김환태문학관 · 최북미술관 수강생 모집

무주군은 김환태문학관과 최북미술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관내에 거주하는 성인 15명을 선착순 모집하는 김환태문학관 '성인문학교실 4기' 교육(11월부터 실시)은 신혜식 강사가 시 창작의 이론과 실제 등 문학창작을 위한 기본이론과 배경지식, 문학창작 능력 배양을 위한 토론 및 실기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북미술관에서 진행되는 '어린이 미술교실 9기-나, 너, 우리'는 9월 15일부터 12월 8일(매주 토요일 10:00~12:00)까지 운영되며 관내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15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이승희 강사는 10월 6일까지 '나, 무한한 잠재력을 깨우다', 11월 3일까지는 '너에게 다가서다', 12월 8일까지는 "우리의 힘을 가동하다"를 주제로 한 표현 방법으로 아이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무주군 양정은 학예사는 "문화공간이 전시·관람에만 그치지 않고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환태문학관 · 최북미술관(제1종 공립 미술관)은 무주읍 전통공예 문화촌 내에 위치(무주읍 최북로 15 / 063-320-5636)해 있으며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관람(월요일 휴관)이 가능하다. 김환태 선생의 문학작품을 비롯해 10월 21일까지는 반딧불이가 남택수 작가의 서양화 30여 점을 관람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환태문학관 · 최북미술관(제1종 공립 미술관)은 무주읍 전통공예 문화촌 내에 위치(무주읍 최북로 15 / 063-320-5636)해 있으며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관람(월요일 휴관)이 가능하다. 김환태 선생의 문학작품을 비롯해 10월 21일까지는 반딧불이가 남택수 작가의 서양화 30여 점을 관람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한국의 서원'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되나?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가 '한국 서원' 9곳의 현지실사를 마쳤다.

문화재청은 201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신청한 '한국의 서원'에 대한 이코모스의 현지 실사가 3일부터 8일까지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현지 실사는 유네스코가 의뢰하면 자문기관이 수행한다. 이코모스가 지명한 정권(鄭軍) 이코모스 중국위원회 사무국장이 '한국의 서원' 현지 실사를 담당했다.

정 사무국장은 6일 실사 기간 서원 9곳을 모두 방문해 현지 문화재 관리자와 서원 관계자를 만나 설명을 들었다. 해당 서원 보존 관리 체계, 활용 현황, 세계유산으로서의 진정성과 완전성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일일이

점검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한 '한국의 서원'은 경북 영주시 소수서원, 안동시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경주시 옥산서원, 대구시 달성군 도동서원, 경남 함양군 남계서원, 전남 장성군 필암서원, 전북 정읍시 무성서원, 충남 논산시 돈암서원 등 총 9곳으로 구성된 연속 유산이다.

현지 실사는 서류 심사, 토론회 심사 등 여러 전문가 참여로 진행되는 세계유산 전체 심사 과정 중 한 단계다. 이코모스는 이번 실사 결과 포함 최종 평가 결과를 내년 6월 말 개최될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세계유산 등재 심사'에 보고한다. 이어 이 위원회에서 세계유산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북은행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

“  
그 누구에게나 희망과 위로  
그리고 힘이 되는  
따뜻한 금융이 되겠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일 · 제 2018-다-37호  
(심의일자: 2018. 1. 30 현재)